

리더십, 과대평가되진 않았습니까?
IS LEADERSHIP SOMEWHAT OVERRATED?

By Robert J. Tamasy

그저 몇 달이라도 비즈니스 및 전문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면, 모종의 리더십훈련 또는 교육 참가를 요청하거나, 독려하고 심지어는 요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1 시간가량의 회의나 워크숍, 세미나 또는 콘퍼런스 등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당신을 더욱 효율적인 리더로 준비시키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끔은 리더십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가? 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리더십과는 달리, 누군가를 따르는 법에 관해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것은 언제인가?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카이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굳이 리더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훌륭한 참모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팀 안에서는 각 각의 역할들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랑하십시오.”

카이트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이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순 없다. 군대의 모든 인원이 장군이고 실제 전투에 임하는 병사가 아무도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작가 겸 편집자로 매우 즐겁게 일했던 경험이 있다. 내 직함은 ‘출판국장’ 이었지만, 직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잘한 업무들이 주어지곤 했다. 하지만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단체 대표가 자신의 사무실로 나를 불러들이고는 이렇게 물었다.

If you have been in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world for any length of time – even for just a few months – chances are you have asked, encouraged or even ordered to attend some form of leadership training. It might have been an hour-long meeting, a workshop, a seminar or even a conference. In any case, the intention was to prepare you for becoming a more effective leader.

But does it ever occur to you that leadership – leading – is a bit overrated? The reason I ask is because, unlike leadership, when was the last time you participated in training on how to follow?

American business consultant Brian Kight pointed this out recently when he stated on social media, “You do not have to lead. It is not for everyone. That does not mean you cannot be an amazing contributor. Teams need every role. Leadership is just one. Fall in love with the role you have.”

What Kight said might sound strange, but it is true. We cannot all be leaders. What would you think of an army in which everyone was a general, but no one was a soldier engaged in actual battle?

Years ago I was with an organization and enjoying tremendously my job as writer and editor. My title was “director of publications,” but since I had a very small staff, much of the actual day-to-day work fell on my shoulders. And I had no problem with that.

One day a top executive with the organization called me into his office and asked me,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the future – maybe five years from now?” My

“지금부터 대략 5년 뒤 즈음의 미래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대답은 간단했다. 당시 일을 매우 즐기고 있었고,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마도 현재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성과와 업무를 칭찬했으며, 나 자신도 딱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목표를 향한 야망이나 포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굳이 내가 다른 이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기보다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당시에 제작하던 출판물 작업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카이트가 말했듯 리더의 책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만족감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그들이 더 큰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그러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훌륭한 리더였으며, 신실하고 헌신적인 제자를 세우기 원하셨다. ‘따름(followship)’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리더가 이끌도록 두라.

예수님은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모으시는 과정에서 비전을 품은 자를 찾으셨지만, 또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따름에는 대가가 있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누군가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때때로 이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answer was simple: I saw myself doing much of what I had been doing, since I was greatly enjoying my work, and found it very fulfilling. Many people had complimented my work, and I saw no need for making any changes.

It was not that I lacked ambition or aspirations for achieving new goals. It was simply that I felt no need to be directing others. Rather than delegating work to others, I much preferred rolling up my sleeves and being directly involved myself in whatever publications we had to produce at the time.

As Kight said, the responsibility to lead “is not for everyone.” Many people are well-content with carrying out their respective tasks, understanding they are contributing to a greater goal. In the Scriptures, we see this modeled perfectly by Jesus Christ. He was the unquestioned leader; what He wanted was faithful, devoted followers. Here are some examples of what the Bible says about “followship”:

Let the leader set the pace. In assembling His team, Jesus sought people with vision – but also the willingness to follow.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There is a cost to following. Following even a powerful leader is not always easy. It sometimes means sacrifice, being willing to set aside one’s own ambitions for a higher goal.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Luke 9:23).

최고의 리더는 또한 훌륭한 팔로어(follower)이다.

초창기 교회의 최고의 리더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다. 그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리더였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지 잊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 11:1)

The best leaders are also good followers. One of the foremost leaders of the early Church was the apostle Paul. He wielded much influence, but even at that, Paul never forgot whom he was following, who was determining the course.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1 Corinthians 11:1).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모종의 리더십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워크숍, 세미나 또는 콘퍼런스를 통해 배우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What types of leadership training have you participated in? What were some of the things you learned through this training, whether it took place at workshops, seminars or conferences?

2. 따르는 법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에 참여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리더십 교육에는 큰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지만, 따름에 관한 훈련을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When – if ever – have you attended a training session about effective following? Why do you think so much effort is invested in teaching people to lead, but not in instructing how they should follow?

3. 만약 지금 당신이 공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직원의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시를 따라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려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어떻게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까?

If you are a leader in some official capacity, have you ever tried to communicate your appreciation not only for what people do but also for how they follow your direction? If not, how might you go about doing this?

4. 나 자신을 포함해 공식적인 리더십의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할지 생각해봅시다. 이들 또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다소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심지어 당신이 리더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팔로어’가 될 수 있을까요?

What about people – perhaps including yourself – who have not been given formal leadership responsibilities: Do you think this makes their – or your – role any less important to what the team is striving to accomplish overall? How could you, even as a leader, learn how to become a better follower?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25:6-7, 29:23; 마태복음 4:18;22, 8:18-22, 16:21-26; 요한복음 10:1-18; 베드로전서 2:18-21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잠 25:6-7)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옴이니라
- (잠 29: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 (마 4: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 (마 4: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마 8:18-22) 18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 (마 16:21-26)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 (요 10:1-18)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 (벧전 2:18-21)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교실업인회 www.cbmc.or.kr